

청소년 독서 수업 지도안(교사용)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 이름은 오랑

하유지 지음



주제어 : 바디체인지, 반려동물, 유기동물, 생명, 판타지, 성장, 정체성

프인돌

고양이와 사람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

평범한 여중생 시아. 어느 날 아침 풀밭에서 눈을 떴는데... 얼룩무늬에 털북숭이가 된 몸, 물랑물랑 찹쌀떡 같은 발바닥, 짧은 다리, 끝마디가 구부러진 꼬리. 하루 아침에 고양이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기억나는 건 단 4가지. 인간, 여자, 중학생, 부모님과 거주. 그 외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집 주소, SNS 계정, 퍼스널 컬러, MBTI...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시아는 사람고양이가 된 자신에게 ‘오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원래의 몸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처음 겪는 길고양이 생활은 스펙터클하게 전개되고, 답을 알려 줄 거라 기대했던 묘르신은 ‘자기 자신 안에 답이 있다’ 같은 알쏭달쏭한 조언만 남발한다. 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된 고양이 꼬맹이는 중학생 시아의 생활에 적응 중이다. 인간의 삶은 따뜻하고, 깨끗하고, 풍족하다. 하지만 길을 누비며 살았던 고양이 시절의 자유와 낭만이 조금씩 그리워진다. 과연 이들은 자신의 몸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면소설> 시리즈 두 번째 작품 『내 이름은 오랑』은 『독고의 꼬리』 『3모둠의 용의자』 등으로 생활밀착형 청소년 소설을 활발하게 펴내고 있는 하유지 작가의 짧은 소설집이다. ‘고양이와 사람의 몸이 뒤바뀐다면?’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다른 생명체, 혹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 고양이 덕후이기도 한 하유지 작가는 고양이의 행동을 꿰뚫는다. 몸짓은 물론, 고양이의 복잡한 속내까지 찰떡같이 묘사한다. 길고양이들의 티키타카와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심리전 또한 흥미진진하다. 고양이와 사람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 같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내 이름은 오랑』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청소년 소설이다.

| 독서 활동 목표 |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독서 전 (독서 준비)	1차시 :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 고양이 지식 테스트 - 경험 떠올려 보기
독서 중 (책 속으로)	2차시 : 소설 시점과 인물 파악하기 - 소설의 시점 알기 - 고양이 명부 만들기
	3차시 : 적용하며 감상하기 - ‘내 이름은 OO’ - 어느 날 내가 사라진다면
독서 후 (토론과 논술, 독후 활동)	4차시 : 종합적으로 수용하기 - 나만의 한 줄 평 - 최고의 장면 그리기

| 독서 전 1차시 |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활동 0] 고양이 지식 테스트

고양이를 좋아하나요? 평소 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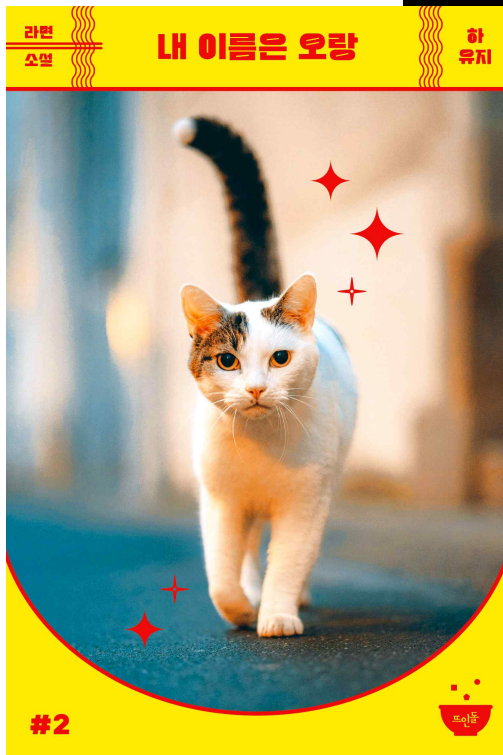
다음 테스트를 통해 고양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세요.

번호	문제	그렇다	아니다
1	집고양이는 하루 2회 정도 산책을 시켜야 한다.	☐	☐
2	고양이는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을 잔다.	☐	☐
3	고양이는 단 것을 좋아한다.	☐	☐
4	고양이는 색맹이다.	☐	☐
5	삼색 고양이는 수컷이다.	☐	☐
6	고양이는 배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	☐	☐
7	한쪽 귀 끝이 잘린 고양이는 중성화된 고양이이다.	☐	☐

[결과]

맞힌 개수	고양이에 대한 지식 수준
6~7개	당신은 훌륭한 집사이거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 고잘알이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고양이를 행복하게 해 주세요!
4~5개	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이로군요! 조금 더 고양이를 공부해서 100점 집사가 되어 보아요!
2~3개	고양이와 당신은 아직 어색한 사이일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양이에게 관심을!
0~1개	고양이도 당신도 서로 미지의 세계로군요. 고양이는 정말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활동 1] 책 표지에 있는 고양이
서 말풍선 안에



[활동 2] 고양이의 이름 ‘오랑’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일까요? 다음 대본을 읽어 보며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 ‘오랑’? 오랑우탄인가? 난 오랑우탄이 생각나는데? 이 고양이 약간 오랑우탄처럼 걷는 거 아닐까?

준겸: 오라는 건가? ‘몰랑’처럼 ‘오랑’ 내게 ‘오랑~.’ 어때?
너는 어떤 의미 같아?

나: _____

** 『내 이름은 오랑』 8~9쪽 참고

[활동 3] 혹시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요즘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활동 4] 등장인물들의 몸이 바뀌는 이야기를 흔히 ‘바디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디 체인지 스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 작품들을 참고해서 몸이 바뀌는 이야기의 효과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까요?



영화 <아빠는 딸>은 고등학생인 딸과 평범한 가장인 아빠의 몸이 어느 날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판타지 가족 영화다. 서로 서먹하기만 하던 아빠와 딸은 몸이 바뀌게 되어 할 수 없이 서로의 학교와 직장으로 향해 일상을 살아가고 경험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점차 이해해 간다.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의 주인공 ‘타키’와 ‘미츠하’는 어느 날 서로의 몸이 바뀐 꿈을 꾸고, 마침내 그것이 꿈일 뿐 아니라 실제의 인물, 장소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강력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 이들은 서로를 만날 수 있을까?

| 독서 중 2차 시 | 소설의 시점과 인물 파악하기

[활동 1] 소설 <내 이름은 오랑>의 줄거리를 6컷 만화로 나타내 봅시다.

scene1	scene2	scene3
scene4	scene5	scene6

[활동 2] 아래 글을 읽으며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 알아 봅시다.

(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아 뉘야 한다. 주변 탐색부터 하기로 한다. 커다래진 세상을 조그매진 몸으로 둘러보기 시작. 이곳이 어디인가 했더니, 아파트 단지다. 건물 옆쪽에 쓰여 있을 아파트 이름은 현재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가 색약에 원시라던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친구 중에 고양이 박사가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중략)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고뇌하는 고양이 마음도 모르고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태평하게도 떠다닌다.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슬피 한숨짓던 나는, 화단 뒤편의 담벼락에 올라앉은 노랑둥이 고양이와 눈이 마주친다.

(나) 아직 어려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아파트라는 것을 인식이라도 한 듯 아파트 이름이 쓰여 있는 벽면을 올려 보다가 잠시 멈췄다. 구름이 뚱뚱 떠가는 하늘을 응시했다가는 실망한 듯 고개를 돌리다 담벼락에 올라앉은 노란 치즈 고양이와 눈이 마주친다.

1. (가), (나)에서 드러나는 서술자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가)글의 서술자: _____

(나)글의 서술자: _____

- * 1인칭 주인공 시점 : 소설의 주인공이 1인칭인 '나'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서술자인 시점. 주인공의 생각을 직접 알려 준다.
- *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의 서술자가 소설 안의 인물이 아닌 외부의 관찰자인 시점.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알 수 없어 그들의 행동과 상황을 주로 묘사하여 보여준다.

2. 내 주변의 사물이나 동물을 하나 고르고, (가)의 서술자와 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해 봅시다.

[활동 3] 아래 글을 참고하여 길고양이와 인간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가) 시아는 서랍장에서 카디건을 꺼내 입는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제법 쌀쌀하다. 침대에는 가을용 솜이불이 깔려 있다. 따뜻하고 폭신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가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뜰 때마다, 시아는 자신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나) 고양이로 살 때는, 견딜 만한 시기가 길지 않았다. 보통은 덤거나 춥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 더울 때는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까딱 잘못하면 굶고 덧났다. 그리고 추울 때는... 시아는 그 시절의 혹독한 추위가 떠오르자 카디건을 여미며 부르르 몸서리친다. 길고양이에게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나 마찬가지다.

(다) 인간의 삶은 나쁘지 않다. 꽤 괜찮다. 꿈에도 구경한 적 없는 쾌적하고 말끔한 집. 사람들이란 얼마나 열심히 집을 쓸고 닦고 가꾸는지. 냉장고나 찬장을 열면 먹을 것이 넘쳐난다. 달걀, 두유, 코다리 조림, 빵, 참치 통조림, 과자, 라면, 과일, 고기. 학교에 가면 또 어땠고? 책상 앞에 앉아 한숨 자고 일어나면 밥이 나오는 기적으로도 모자라 반찬이 매일 바뀌기까지 한다.

(라) 인간으로 사는 일은 편리한 한편, 생각보다 피곤하기도 하다. 사람이란 족속이 쓸데없이 부지런한 탓이다. 일단, 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일주일에 다섯 날은 일찍 일어나 등교해야 하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야 한다. 앓은 채로 눈을 감고 자는 수법도 들키고 말았다.

(마) 담 밖으로 늘어진 나뭇가지를 향해 점프하며 고양이 기분을 내 보려 시도하지만... 점프가 안 돼! 몸이 너무 무거워! 착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땅에 내동댕이쳐진다.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본다. 인간은 통증보다 창피함을 더 못 참으니까. 겨리가 말하기를, 고양이는 자기 키의 7배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몸으로는 0.7배도 어렵다.

	길고양이	인간
특징		
어려움		

힌트) #냄새 #시력 #점프 #공부 #계절 #집 #냉장고 #학원

[활동 4] 1. 소설 속 고양이들의 정보를 정리하여 ‘고양이 명부’를 만들어 봅시다.

이름	증명사진	성격, 특징, 오랑이와의 관계
아라		
차차		
조상님 (장수 할배)		

2. 고양이에 대한 소설 속 인물들의 행동과 생각을 구분하여 정리해 봅시다.

인물	고양이에 대한 태도	고양이에 대한 행동과 생각
겨리	(우호적/ 부정적)	
팍 (은철)	(우호적/ 부정적)	
개나리 아파트 아저씨	(우호적/ 부정적)	

| 독서 중 3차시 | 적용하며 감상하기

[활동 1] 현재 내 삶의 좋은 점(감사할 점)과 어려운 점을 적어 봅시다. 앞서 책을 읽기 전에 내가 부러워했던 존재가 사는 삶의 장점과 단점을 추측하여 써 봅시다.

	나의 삶	내가 부러워하는 존재
감사할 점		
어려운 점		

[활동 2] 내 이름은 OO

내가 부러워했던 존재와 삶이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내 이름은 OO”으로 이야기를 써 봅시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부러워했던 그 존재가 되어 깨어났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활동 3] ‘나’의 장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소설 속에서 조상 고양이는 오랑에게 ‘나’를 찾으려면 ‘나’를 아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요. 지금부터는 ‘나’를 파헤쳐 볼까요?

나를 이루는 부분들	현재의 나	더 발전해 갈 방향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		
해 보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나의 성격		
고치고 싶은 나의 성격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칭찬받은 것		

[활동 4] 어느 날 내가 소설 속 ‘시아’처럼 고양이가 되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 인물 중 한 사람을 서술자로 정해 사라진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봅시다.

| 독서 후 4차 시 |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활동 1] 소설 <내 이름은 오랑>은 자신의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존재와 삶을 바꾼 주인공이 결국에는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화면을 끄기 직접에 재생되고 있던 동영상이 나온다. 원래의 시아가 원래의 꼬맹이를 찍은 영상인데, 서로의 모습으로 뒤바뀌기 전이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이 연립 주택 뒷마당이다. 목련 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은 촬영자, 시아의 발끝이 보인다. 그 앞에서 꼬맹이가 연어 통조림을 먹는다. 육즙이 풍부하고 고소한 연어 맛을 떠올리자, 시아의 입에 침이 고인다.

“이게 그렇게 맛있어? 난 생선은 싫던데.”

영상 속에서 시아가 말하고, 꼬맹이는 연어를 먹으며 고시랑대듯 야옹거린다. 시아는 자기가 고양이일 때 한 말 역시 알아듣는다. ‘진짜 맛있어!’란 뜻이다.

“너, 나하고 바꿀래? 넌 생선 양껏 먹고, 난 잠이나 실컷 자고. 가만 보면 넌 맨날 자더라.”

“냐아-!”(좋아, 안 될 거 없지!)

(나) 엉뚱한 전개와 비장한 다짐으로 인터뷰 끝. 겨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는 허벅지에 팔꿈치를 올려 턱을 괴고 나를 본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가끔 난 막 가슴이 답답해져서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래. 어디 탁 트인 벌판에 가서 너희처럼 우다다 달리면 속이 시원해질 텐데. 내 마음속에 고양이가 있나 봐.”

나도 사람 시절에 겨리처럼 가슴이 답답했을까? 그래서 내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살던 고양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기라도 했나? 노란 달을 올려다보며 냐아아악 외치고 싶어서?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미친 듯 달리고 싶어서? 학교도 안 가고, 양치질이나 다이어트도 관두고, 인간 노릇이라면 뭐든 다 집어치우고 싶어서?

(다) “나, 누군지 알겠어?”

“그럼, 알지. 너도 다 기억난 거야?”

“응. 조금 전에.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서로 바뀐 거 말이야.”

“글쎄, 내 소원이었는지도 몰라.”

“내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고양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

“이젠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지?”

“제자리가 어딘데?”

“각자의 집이지.”

1. 글 (가), (나)에 나타난, 시아가 고양이와 삶을 바꾸고 싶어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고양이가 되고 싶던 시아는 고양이의 삶을 경험한 후 결국 사람이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글 (다)에서 시아의 결심이 담긴 부분을 찾아 쓰고, 시아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3. (다)의 밑줄 친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고양이도, 사람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 조상 고양이의 다음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들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한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답은 이미 아는 것 속에 있는 법이거든.”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지 달리 뭘 알겠나?”

—장수 할배 고양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생각 정리하기]

소설의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나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답답한 현실을 떠나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라야 할까요?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활동 2] 나만의 한 줄 평 쓰기

이 소설에 대한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 봅시다.



[활동 3] 최고의 장면을 담아 책 표지를 새로 그려 봅시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students to draw the book cover based on their favorite scene.

뜨인돌

www.ddstone.com

뜨인돌출판(주)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9

전화 (02)337-5252 | 팩스 (031)947-5868

뜨인돌 블로그 blog.naver.com/ddstone1994

뜨인돌 페이스북 www.facebook.com/ddstone1994

뜨인돌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dstone_books